

LCSH 한국관련 주제명표목의 변천과정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Development of Topical Headings Related to Korea in LCSH

김 정 현(Jeong-Hyen Kim)*

문 지 현(Ji-Hyun Moon)**

< 목 차 >

I. 서론	1. 한국관련 주제명표목의 판별 특성
II. LCSH의 역사적 발전과정	2. 한국관련 주제명표목의 주제별 특성
III. LCSH 한국관련 주제명표목의 변천과정 및 특성 분석	IV. 결론

초 록

LCSH는 오늘날 도서관목록 및 국가서지에 있어 매우 중요한 주제접근 도구로 사용되고 있다. 1914년 처음 LC에서 개발했지만 오늘날 세계 여러 나라 도서관에서 LCSH를 적용하고 있을 만큼 주제명표목에 있어 영향력이 크다고 할 수 있다. 이 연구는 LCSH에 수록된 주제명표목 가운데 한국관련 주제명의 변천과정과 특성을 LCSH 초판(1914)부터 제30판(2007)까지 종합적으로 비교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한국의 역사구분이나 관련 주제명이 일반적으로 우리나라 학계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와 다른 경우가 많이 나타나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중요하거나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주제명이 누락되어 있고 상대적으로 지나치게 세분된 주제명도 많이 있다. 한국관련 주제명이 균형을 이루지 못하고 누락되거나 전개가 부족한 것은 전적으로 LC의 장서수집정책과 관련이 있지만, 최근의 학술적 연구 성과가 반영된 한국관련 문헌이 LC에 골고루 많이 수집될 수 있도록 기증을 하는 등 우리의 보다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키워드: 미국의회도서관주제명표목표, 주제명표목, 주제명목록

ABSTRACT

LCSH is now used as a major subject access tool in library catalogs and national bibliographies. Internationally, LCSH has also gained wide acceptance. Over the years, many libraries in other countries have adopted or adapted LCSH.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historical process and characteristics of subject headings related to Korea in the LCSH, from the first edition to 30th ed. The analytic results show that the section of Korean history and related subject headings are different from the terms used in Korean academic world : Some subject headings considered important and essential are left out. We can also recognize the some headings are relatively too subdivided. The omitted and insufficient Korean subject headings are considered to be tied up with library policies of LC. Therefore our active support such as donation are being called for collecting more detailed analysis of Korea-related publications in LC.

Keywords: LCSH, Library of Congress Subject Headings, Subject Headings, Subject catalog

* 전남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교수(jhgim@chonnam.ac.kr) (제1저자)

** 전남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강사(rlacodnjs@hanmail.net) (교신저자)

• 접수일: 2009년 8월 23일 • 최종심사일: 2009년 8월 25일 • 최종심사일: 2009년 9월 21일

I. 서론

1. 연구목적 및 방법

LCSH(Library of Congress Subject Headings)는 원래 미국의회도서관에서 자관의 장서를 주제로 검색하기 위해 개발한 것이지만, 오늘날 미국 내의 도서관은 물론이거니와 전 세계도서관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을 만큼 보편화 되었다. 즉, LCSH는 미국뿐만 아니라 영어를 사용하는 문화권의 대학 및 연구도서관 등에서 주제명목록의 작성을 위해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으며, 또한 프랑스어로 번역되어 프랑스, 캐나다 등 불어권의 많은 도서관에서도 사용되고 있는 명실 공히 국제적인 주제명표목표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현재 표목어로 채택되어 있는 주제명도 외부적인 환경의 추세에 따라 변화되어 왔으며, 앞으로 변화될 가능성이 있다. 여기서 외부적인 환경이란 *Academic American Encyclopedia* 등 LC에서 LCSH의 주제명을 논의·평가하기 위해 수시로 참고하는 40여종의 참고문헌들에 수록되는 각종 내용의 변화상태를 의미한다.¹⁾ 즉, 이는 상황에 따라 언제든지 우리에게 유리할 수도 있고 불리하게 표기될 수도 있으므로 우리는 한국관련 주제명의 변화추이를 항상 주목하여 면밀하게 분석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한편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주변국과 논란이 되고 있는 주제명도 문제가 있지만, 한국관련 주제명이 나타나 있더라도 역사, 문화, 언어, 문학 등 여러 분야에서 한국관련 주제를 충분히 반영하고 있지 못한 부분이 많이 발견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계적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는 영향력을 감안하면 우리로서는 그 내용을 충분히 분석하여 LCSH의 개정작업에 우리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인 필요한 것이다.

이 연구는 LCSH에 수록된 주제명표목 가운데 한국관련 주제명의 변천과정과 특성을 LCSH 초판(1914)부터 제30판(2007)까지 종합적으로 비교 분석하고자 한다.

이 연구를 위한 구체적인 연구방법은 아래와 같다.

첫째, LCSH와 관련문헌을 분석하여 LCSH의 역사적 발전과정을 개괄적으로 분석한다.

둘째, LCSH의 한국관련 주제명을 추출하여 판별 및 주제별로 구분한 다음, 한국관련 주제명의 변천과정과 특성을 분석한다. 연구의 제한점으로 LCSH의 한국관련 주제명을 모두 추출하기 위해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30만여 건(1만 페이지)에 해당하는 주제명을 하나하나 분석하지 않고는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편의상 'Korea'와 'Korean'으로 시작되는 주제명을 중심으로(이들의 도치표목도 포함) 분석하였다.

1) Lois Mai Chan, *Library of Congress Subject Headings: Principles and Application*, 4th ed. (Westport, Conn. : Libraries Unlimited, 2005), pp.475-476.

2. 선행연구

LCSH에 대한 일반적인 연구는 제외하고 한국 관련 주제명 연구를 중심으로 선행연구를 분석하기로 한다. LCSH의 한국관련 주제명에 대한 연구 외에는 지금까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Kim은 LCSH 제12판(1989)을 대상으로 한국 및 동아시아 관련 주제명을 추출하였다.²⁾ 이는 내용 분석이 아니라 단지 관련용어를 추출하여 알파벳으로 편집한데 불과하지만, LCSH에 수록된 한국관련 주제명을 개략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최초의 자료라는데 의의가 있다고 생각된다. 그 후 김영귀는 접근점으로서의 주제명표목을 고찰한 다음, LCSH 제18판(1995)에 나타난 한국관련 주제명을 분석하였으며,³⁾ 윤정옥은 LCSH 제20판(1997)에 나타난 한국과 일본관련 주제표목을 대상으로 개략적인 주제 분포와 논쟁이 되고 있는 용어들을 비교 분석하였다.⁴⁾ 그런데 이들의 연구는 각각 1995년도에 발간된 LCSH 제18판과 1997년도 발간된 제20판을 대상으로 한국관련 일부 용어만 분석하고 있어 최근의 용어들에 대한 변화추이나 그 이전의 상황을 알 수가 없다.

한편 김주성은 LCSH와 시소러스의 색인어 구조를 비교하여 전통적인 주제명표목표가 참조구조를 시소러스로 변환시켰을 때 나타나는 문제점을 분석하였으며,⁵⁾ 윤혜영은 LCSH의 일반적인 색인어 구조를 분석하였다.⁶⁾ 이들의 연구는 모두 LCSH의 일반적인 색인어 구조에 대한 연구이며, 한국관련 주제명을 분석한 것은 아니다.

또한 외국학자들의 LCSH 관련 연구로는 Chan,⁷⁾ Knowlton,⁸⁾ Stone,⁹⁾ Studwell,¹⁰⁾ 山本,¹¹⁾ 渡邊¹²⁾ 등이 있으며, 이들의 연구도 한국관련 주제명의 분석에 대한 연구가 아니라 대부분 LCSH

2) Kim, Joy, *Library of Congress Subject Headings : Related to Korea and East Asia in Genera* ([Unknown] : Association for Asian Studies, 1989).

3) 김영귀, "LC Subject Headings에 나타난 한국관련 주제명의 선정 및 표기에 관한 연구," 부산여자대학교 논문집 (인문사회과학대학편), 제44집(1997), pp.237-272.

4) 윤정옥, "미국의회도서관 주제명표목표(LCSH)의 한국과 일본 관련 주제표목의 비교 연구," 도서관, 제56권, 제1호(2001), pp.30-55.

5) 김주성, LC 주제명표목표와 시소러스의 색인어 구조 비교연구(석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대학원, 1995).

6) 윤혜영, "LC Subject Headings 색인어 구조 분석," 인문사회과학논문집(중부대학교 인문사회과학연구소), 제7권, 제2호(2003), pp.133-150.

7) Lois Mai Chan, *Ibid.*

8) S. A. Knowlton, "Three Decades Since Prejudices and Antipathies: A Study of Changes in the Library of Congress Subject Headings," *Cataloging & Classification Quarterly*, Vol.40, No.2(2005), pp.123-146.

9) Alva T. Stone, *The LCSH Century: one Hundred Years with the Library of Congress Subject Headings System*(New York : Haworth Information Press, 2000).

10) William E. Studwell, *Library of Congress Subject Headings: Philosophy, Practice, and Prospects*(New York : Haworth Press, 1990).

11) 山本一治, "米國議會図書館件名標目表(LCSH)の特性-標目の意味、標目間の關係、主題表現の「文法」の観点から," TP&Dフォーラムシリーズ, 第17回(2007. 8), pp.26-58.

12) 渡邊隆弘, "LC件名標目表(LCSH)の基本構造と檢索支援の可能性," TP&Dフォーラムシリーズ, 第13回(2003. 8),

의 일반적인 구조와 특성, 발전과정 등에 관한 연구이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지금까지 LCSH에 관한 연구는 주로 LCSH의 특성이나 구조 등 일반적인 연구가 대부분이며, 한국 관련 주제명의 연구는 김영귀와 윤정옥의 연구 외에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리고 이들의 연구도 이미 10여년 전에 발간된 LCSH를 대상으로 하고 있어 최근의 용어들에 대한 변화추이나 그 이전의 상황을 알 수가 없다. 이와 같이 이 연구에서 분석대상으로 하고 있는 LCSH의 초판부터 제30판까지 한국관련 주제명의 판별 및 주제별 특성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연구는 지금까지 이루어지지 않았다.

II. LCSH의 역사적 발전과정

오늘날 주제명표목의 기초가 된 것은 1876년에 발행된 Cutter의 *Rules for a Dictionary Catalog*라고 볼 수 있다. 이 규칙은 저자, 서명 등의 알파벳순목록체계에 주제명을 포함시켜 하나의 체계로 배열한 것이 특색이며, 이를 계기로 사전체목록이 일반화되었다. 그리고 Cutter가 이 규칙의 부록으로 중소규모의 공공도서관을 염두에 두고 만든 것이 1895년에 발행된 ALA의 *List of Subject Headings for Use in Dictionary Catalog*이며, 그 후 이것이 LCSH의 토대가 되었다.¹³⁾

LCSH의 초판은 *Subject Headings Used in the Dictionary Catalogues of the Library of Congress*라는 표제로 1914년에 발간되었다. 이름 그대로 미의회도서관의 주제명표목표로 출발하였지만 1930년대에는 미의회도서관뿐만 아니라 미국의 다른 많은 도서관에서도 이를 채용하게 되었다. 5~15년 간격으로 판을 거듭한 후, 1975년 제8판부터 *Library of Congress Subject Headings*라는 현재의 표제가 되었다.

1980년대 들어 참조구조를 비롯하여 외형적으로 큰 변화가 있었다. 즉, 1988년 제11판부터 시소러스방식의 표시기호를 도입되었으며, 표목수의 증가로 3분책으로 발행하였다. 또한 이후 판부터는 매년 정기적으로 발행하기 시작하였으며, CD-ROM판이 발행된 것도 제11판부터이다. 1990년대 들어 표목수는 계속 증가하여 1992년 15판부터 4분책, 1998년 제21판부터 5분책으로 발행되어 왔다. 2002년도부터 전거데이터의 검색시스템을 웹상에서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2007년 현재 제30판이 발간되어 있으며, 이제는 책자형태뿐만 아니라 온라인으로도 계약하여 이용할 수 있다. 그리고 LCSH의 신규 및 변경표목에 대해서는 웹 사이트를 통해 *Library of Congress Subject Headings Weekly Lists*로 알려주고 있으며, 이를 다음 개정판에 그대로 추가하여 발행하게 된다.

pp.37-58.

13) Lois Mai Chan, *Ibid.* pp.5-7.

한편 LCSH의 참조기호는 다음과 같은 변천과정을 겪어왔다. 초판에서는 See와 See also의 참조기호가 사용되었으며, 제4판에서는 See 참조와 See also 참조 외에 이것을 역으로 나타낸 역참조 Refer from의 별표도 첨부되어 있다. 제5판에서는 Refer from의 역참조를 본표에 통합시켰으며, 참조를 나타내는 기호(sa, x, xx, See)를 사용하였다. 여기서 sa는 See also 참조, x는 See from 참조, xx는 See also from 참조를 의미한다. 제11판부터 시소러스방식의 표시기호인 USE, UF, NT, BT 등을 도입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즉, 제9판까지 사용되었던 참조기호인 sa는 NT, x는

〈표 1〉 LCSH의 판별 현황과 한국관련 주제명의 변화

판차	발행년도	면수	권수	주제명표목	한국관련 주제명			
					표목	참조어	표목 및 참조어	면수
1	1910-1914	1,088	2		4	0	4	1
2	1919	1,315	9		4	0	4	1
3	1928	1,535	1		4	0	4	1
4	1943	2,743	2		4	0	4	1
5	1948	1,204	1		7	0	7	1
6	1957	1,357	1		33	5	38	1
7	1966	1,432	1		54	7	61	2
8	1975	2,026	2		116	14	130	2
9	1980	2,591	2		127	21	148	2
10	1986	3,543	2	145,000	180	109	289	3
11	1988	4,164	3	162,750	200	127	327	3
12	1989	4,463	3	173,000	215	146	361	3
13	1990	4,709	3	181,000	227	158	385	4
14	1991	4,904	3	186,000	236	166	402	4
15	1992	5,091	4	192,000	239	183	422	4
16	1993	5,091	4	199,000	266	196	462	4
17	1994	5,584	4	206,300	271	210	481	5
18	1995	5,796	4	214,900	271	218	489	5
19	1996	5,979	4	222,900	279	223	502	5
20	1997	6,165	4	232,000	288	232	520	5
21	1998	6,374	5	239,000	291	239	530	5
22	1999	6,495	5	245,000	294	240	534	5
23	2000	6,677	5	251,300	302	244	546	5
24	2001	6,859	5	257,600	317	252	569	6
25	2002	7,041	5	263,000	347	258	605	6
26	2003	7,285	5	270,000	350	259	609	6
27	2004	7,592	5	279,000	352	277	629	6
28	2005	7,782	5	284,500	353	279	632	6
29	2006	7,946	5	290,000	357	282	639	6
30	2007	8,268	5	299,000	371	290	661	7

UF, xx는 BT, See는 USE로 바뀌었다.

LCSH 제30판은 2006년 12월 현재 미국의도서관의 주제전거파일에 수록된 모든 주제전거레코드를 수록하고 있으며, 그 표목의 총수는 대략 299,000개이다. 1년 전에 발간된 제29판에 비해 9,000개의 레코드가 추가되었다. 제30판의 표목 가운데 인명 2,2000, 가족명 20,700, 단체명 6,100, 회의명 9, 통일표제480, 주제적 주제명(topical subject) 220,000, 지리적 주제명 51,000개가 수록되어 있다. 그리고 일반 USE 참조 750, 일반 see also 참조 4,100, 사용되고 있는 표목에서 사용가능한 다른 표목으로 참조(BT, NT, RT) 260,000, 사용되지 않는 용어에서 사용가능한 표목으로 참조(UF) 300,000개이다.¹⁴⁾

이상에서 개략적으로 살펴본 LCSH 제1판부터 제30판까지 판별현황을 한국관련 주제명의 변화와 함께 살펴보면 <표 1>과 같다. <표 1>에서 주제명표목의 전체 개수가 제10판 이후에는 각 서문에 나타나있지만 제1판부터 제9판까지는 나타나있지 않아 생략하였다. 한국관련주제명은 'Korea'와 'Korean'으로 시작되는 주제명을 중심으로 직접 조사하였다.

Ⅲ. LCSH 한국관련 주제명표목의 변천과정 및 특성 분석

1. 한국관련 주제명표목의 판별 특성

LCSH 초판부터 제30판까지 한국관련 주제명표목의 주요 변화 및 특성을 분석하면 다음과 같으며, 특히 한국관련 주제명표목, 참조어, 수록 면수 등의 현황은 <표 1>에 제시한 바와 같다.

가. 제1판에서 제4판까지

1914년 제1판부터 1943년 제4판까지는 일제강점기에 해당하는 시기로 일반적인 우리나라의 국가명 주제표목인 'Korea'가 나타나 있지 않다. 즉, 당시의 역사현실을 반영하여 이 기간에 LCSH에는 '한국'이라는 나라가 수록되어 있지 않다. 다만 'Korean'으로 시작되는 일반 주제명표목 'Korean language', 'Korean literature', 'Korean literature-Bibl.', 'Koreans in the U.S.' 등 4개가 수록되어 있을 뿐이다.

나. 제5판에서 제7판까지

① 우리나라 정부수립이후의 기간에 해당하는 1948년 제5판에 우리나라의 국가명 주제표목 'Korea'

14) Library of Congress, *Library of Congress Subject Headings*. 30th ed.(Washington, D.C. : Library of Congress, Cataloging Distribution Service, 2007), pp.vii-viii.

가 아래와 같이 처음으로 수록되었다.

Korea

- History
- 1945-

② 6.25 전쟁 이후의 기간에 해당하는 1957년 제6판에서는 'Korean War, 1950-1953'(6.25 전쟁) 아래 23개의 세목과 2개의 하위개념어('청천강 전투'와 '임진강 전투')가 수록되었다. 그리고 'Korea-History' 아래 2개의 세목이 추가되었으며, 6.25 전쟁은 한국역사에 포함하지 않고 독립표목으로 편성한 후, 한국역사와 참조관계를 설정하였다. 또한 'Korean fiction'과 'Korean poetry'가 추가되었다.

Korea

- History
- Japanese invasions, 1592-1598
- 1945-
- War and interventions, 1950-1953
- See Korean War, 1950-1953

Korean War, 1950-1953(6.25 전쟁)

- sa Ch'ongch'on-gang, Battle of, 1950(청천강 전투)
- Imjin-gang, Battle of, 1950(임진강 전투)
- Aerial operations
- Armistices
- Atrocities
- ...
- Religious aspects
- Supplies

③ 제7판에서는 'Korea-History'가 상세하게 13개의 세목으로 전개되고 하위개념어로 'Tonghak Incident, 1894'(동학혁명)가 추가되었다. 이때 전개된 한국역사의 전개가 지금까지 큰 변화 없이 대부분 그대로 계속되고 있다.

Korea

- History
- Early to 935
- Koryo period, 935-1392(고려시대)
- Yi dynasty, 1392-1910(조선시대)

- Japanese invasions, 1552-1598(임진, 정유재란)
- Manchu invasions, 1636-1637(정묘, 병자호란)
- 1868-1910
 - sa Tonghak Incident, 1894(동학혁명)
- Chosen, 1910-1945
- Independence movement, 1919(3.1 독립운동)
- 1945-
- War and interventions, 1950-1953
 - See Korean War, 1950-1953(6.25 전쟁)
- April Revolution, 1960(4.19 혁명)
- May Revolution, 1961(5.16 혁명)

다. 제8판에서 제9판까지

- ① 제8판에서 'Korea-History'의 세목에 'Mongolians, 1231-1270'(몽고침입), 'Allied occupations, 1945-1948'(군정시대)이 추가되고, 'Korea--History'의 하위개념어로 'Hong Kyong-nae Incident, 1811-1812'(홍경래의 난)와 'Kapsin Incident, 1884'(갑신정변)가 추가되었다.
- ② 제8판에서 한국문학, 한국시, 한국소설, 한국희곡, 한국산문 등 문학이 세분되었다.

Korean literature

- Middle Korean, 935-1500

Korean fiction

- 20th century

Korean drama

sa Sandae plays

Korean poetry

sa Buddhist poetry, Korean

Changga

Hyangga

Sijo

Korean prose literature

- ③ 제8판에서 'Medicine, Korean'(한의학)이 수록되었다.
- ④ 제8판에서 'Kimch'i industry'(김치산업)'이라는 주제명으로 'Kimch'i'(김치)가 처음 수록되었다.

- ⑤ 제9판에서 고려시대이전(to 935) 한국역사의 하위개념어로 가야, 고구려, 백제, 신라가 수록되었다.

Korea - History - To 935
sa Karak, Korea(Kingdom)
Koguryo, Korea(Kingdom)
Paekche, Korea(Kingdom)
Silla, Korea(Kingdom)

- ⑥ 제9판에서 'Korea'의 세목으로 'Church history', 'Civilization', 'Description and travel', 'Economic conditions', 'Politics and government' 등이 시대세목과 함께 추가되었다.

라. 제10판

- ① 국가명 주제표목 'Korea'의 하위개념어로 남한과 북한을 수록하였다. 이후 주제명에 따라 1948년을 기점으로 남북한을 구분하여 기술하고 있다.

Korea
Here entered works on Korea as a whole for the pre-1948 period.
sa Korea(North)
Korea(South)
Korea(North)
x Korea(Democratic People's Republic)
North Korea
xx Korea
Korea(South)
x Korea(Republic)
South Korea
xx Korea

- ② 'Korea'의 세목으로 'Social conditions'과 'Religion'이 추가되었으며, 'Korea-Religion'의 하위개념어로 'Taejonggyo'(대종교)가 수록되었다. 그리고 'Philosophy, Korean'(한국철학)이 처음 수록되었다.
- ③ 'Korea'의 세목으로 'Foreign Relations'가 수록되고, 'Korea(South)'의 세목으로 경제관련 주제명인 'Industries', 'Economics conditions', 'Economics policy' 등이 수록되었다.
- ④ 'Korea-Civilization'의 세목으로 'American influences', 'Buddhist influences', 'Chinese influences' 등이 추가되었다.

- ⑤ 80년대 한국의 현대사를 반영하여 독립표목으로 'KLA기 폭파사건'과 '광주사태'를 수록하였다.

Kwangju Uprising, Korea(South), 1980

x Korea(South)-History-Kwangju Uprising, 1980

Korean Air Lines Incident, 1983

x Downing of Korean Air lines Flight 007, 1983

Flight 007 Incident, 1983

KLA Fight 007 Incident, 1983

...

- ⑥ 독립표목으로 'Korean Demilitarized Zone(Korea)'(비무장지대)가 수록되었다.

Korean Demilitarized Zone(Korea)

x Demilitarized Zone, Korean(Korea)

DMZ(Korea)

Neutral Buffer Zone, Korean(Korea)

xx Korean War, 1950-1953--Armistices

- ⑦ 'Korean language'의 세목으로 'To 935', 'Orthography and spelling', 'Writing' 등이 추가 되었으며, 'Korean language-Writing'의 세목으로 'Idu'(이두)가 처음으로 수록되었다.

- ⑧ 한국소설에 'Buddhist, stories, Korean', 'Children's stories, Korean', 'Historical fiction, Korean', 'Love stories, Korean', 한국드라마에 'Children's plays, Korean'과 'Folk-drama, korean', 한국시에 'Children's poetry, Korean', 'Christian poetry, Korean', 'College verse, Korean', 'Patriotic poetry, Korean', 'Political poetry, Korean', 'School verse, Korean' 등의 하위개념어가 각각 추가되었다.

- ⑨ 'Korean American business enterprises', 'Korean American engineers', 'Korean American scientists', 'Korean American women' 등 'Korean American'(한국계 미국인)에 대한 주제명이 독립표목으로 많이 추가되었다.

- ⑩ 동해의 주제명표목이 한국인의 정서와는 달리 'Japan, Sea of'로 수록되었으며, 'Tong-hae'는 참조어로 되어 있다. 사실상 많은 세계지도나 백과사전 등에 '동해'의 명칭을 'Sea of Japan'으로 표기되어 있는 현상을 LCSH에서 그대로 반영하였다고 볼 수 있다.

Japan, Sea of

x IAponskoe More

Japan Sea

Nihon-kai

Nippon-kai

Sea of Japan

Tong-hae

Yaponskoye More

xx Pacific Ocean

- ⑪ 'Paektu Mountain'(백두산)이 처음으로 수록되었으며, 한글발음으로 표기되었다. 괄호 안에 지리 한정어를 'Korea'로 표시하고 있다.

Paektu Mountain(Korea)

x Hakutosan(Korea)

Pai'tou Mounatin(Korea)

xx Mountains-Korea(North)

마. 제11판

- ① 앞절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제11판부터 관계기호의 구조가 시소러스에서 주로 사용되고 있는 USE, UF, SA, BT, NT, RT 등의 기호로 전면 개편되었다.

- ② '한국어'에서 세목으로 '어원', '데이터처리', 'CJK' 등이 추가되었다.

- ③ 'Tok Island'(독도)가 독립표목으로 처음 수록되었다. 한글발음을 로마자화 하면서 M-R 방식으로 표기하고 있으며, 괄호 안에 지리 한정어를 'Korea'로 표시함으로써 독도가 한국에 소속된 지명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일본이 영유권을 주장하며 내세우는 'Take-shima'(다케시마)는 '독도'의 표목으로 채택되지 않고 참조어(UF)로 되어 있을 뿐이다.

Tok Island(Korea)

UF Dok-do(Korea)

Dokdo(Korea)

Take-shima(Korea)

Tokto(Korea)

BT Islands-Korea(South)

- ④ 'Yalu River'(압록강)가 독립표목으로 처음 수록되었으며, 표목은 중국식 발음으로 표기되어 있다. 괄호 안에 지리 한정어를 'China and Korea'로 표시하고 있다.

Yalu River(China and Korea)

UF Amnok-kang(China and Korea)

BT Rivers-China

Rivers-Korea(North)

- ⑤ 제8판에서 '김치산업'으로 소개된 이후, 제11판에서 'Kimch'i'(김치)가 독립표목으로 처음 수

록되었다.

바. 제12판에서 제13판까지

- ① 제12판에서 'Korea-history-Manchu invasions'의 참조어로 '정묘호란'과 '병자호란'을 수록하였다.

Korea

- History

-- Manchu invasions, 1627-1637

UF Chongmyo horan, Korea, 1627

Pyongja horan, Korea, 1636-1637

- ② 제12판에서 'Korea(South)'의 세목으로 'Economic policy'(경제정책), 'Yosun Rebellion, 1948'(여순반란사건)'이 수록되었다.

- ③ 제12판에서 사적지의 주제명이 처음 수록되었다.

Korea(South) - Antiquities

NT Chungdo Site(Chunch'on-si, Korea)

- ④ 제13판에서 'Korea-History-Japanese invasion'의 참조어로 '임진왜란'과 '정유재란'이 수록되었다.

Korea - History

-- Japanese invasions, 1592-1598

UF Chongyu Chaeran, Korea, 1597-1598

Imjin Waeranm, Korea, 1592-1598

...

- ⑤ 제13판에서 외교의 하위개념어로 '거문도사건(1885-1887)'이 수록되었다.

Korea - Foreign relations

NT Komundo Incident, Korea, 1885-1887

- ⑥ 제13에서 문학류를 보다 세분하여 Korean diaries, Korean drama, Korean essays, Korean fiction 등을 'Korean literature'의 하위개념어로 수록하였다. 그 이전에는 이들 주제명은 'Korean literature'와는 독립표목이었다.

사. 제14판에서 제17판까지

- ① 제14판에서 'Korea-History'의 세목으로 '제주도사건'이 추가되었다.

Korea - History

-- Chejudo Rebellion, 1948

UF Chejudo Rebellion, Korea, 1948

- ② 제14판에서 'Korean War-Atrocities'의 하위개념어로 '거창사건'이 추가되었다.

Korean War, 1950-1953

- Atrocities

NT Koch'ang Incident, Korea, 1951

- ③ 제15판에서 'Korea Strait'(대한해협)이 독립표목으로 처음 수록되었다.

Korea Strait

BT Straits-Japan

Straits-Korea(South)

- ④ 제16판에서는 제9판부터 수록되었던 'Korea-History-To 935'의 하위개념어인 '가야', '고구려', '백제', '신라'를 삭제하였다.

- ⑤ 제16판에서 'Korean language-Particles'의 하위개념어로 'Kugyol'(구결)이 수록되었다.

- ⑥ 제16판에서 한국문학 'Korean literature'의 하위개념어로 'Korean American literature', 'Korean letters', 'Korean prose literature', 'Korean wit and humor', 'Soldiers' writings, Korean', 'Teenagers' writings, Korean', 'Travelers' writings, Korean' 등 8개가 추가되었다.

아. 제18판에서 제22판까지

- ① 제18판에서 'Uibyong'(의병)을 독립표목으로 수록하였다.

Uibyong

UF Korean righteous armies

Korean volunteer armies

- ② 제18판에서 주제명표목이던 'Korea-Industries'와 'Korea(South)-Industries'가 참조어로 되고, 대신에 도치형태인 'Industries-Korea', 'Industries-Korea(South)'가 표목어로 변경되었다.

- ③ 제20판에서 'Korea-Economic conditions'의 시대세목이 추가되었다.

- ④ 제20판에서 'Tumen River'(두만강)가 독립표목으로 처음 수록되었으며, 중국식 발음으로 표기되어 있다. 괄호 안에 지리 한정어가 표시되어 있지 않지만 상위개념을 살펴보면 'China', 'Korea(North)', 'Russia(Federation)'의 3개국에 소속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다.

Tumen River

UF Tomon-ko

T'u-men chiang

Tuman-gang
Tumyntszyan
BT Rivers-China
Rivers-Korea(North)
Rivers-Russia(Federation)

자. 제23판부터 제25판까지

- ① 제23판에서 한국-사적의 하위개념어로 '석장리'와 '탄금대'가 추가되었다.
- ② 제23판에서 한국-문화의 세목으로 'Islamic influences'(이슬람영향), 'Japanese influences'(일본영향), 'Mediterranean influences'(내륙영향) 등 3개가 추가되었다.
- ③ 제23판에서 '독도'의 참조어가 4개에서 15개로 늘어났으며, 이때 '가지도', '삼봉도', 'Liancourt Rocks'(리앙쿠르암)가 처음 수록되었다.

Tok Island(Korea)
UF Dok-do(Korea)
Dokdo(Korea)
Kaji-do(Korea)
Kaji Island(Korea)
Kajido(Korea)
Liancourt Rocks(Korea)
Sambong-do(Korea)
Sambong Island(Korea)
Sambongdo(Korea)
Take-shima(Korea)
Tok-do(Korea)
Tok Islands(Korea)
Tok-to(Korea)
Tokdo Islands(Korea)
Tokto(Korea)

BT Islands-Korea(South)

- ④ 제24판에서 한국문화에 'Hanmunhak'(한문학), 'Hansi'(한시), 'Hanmun sup'il'(한문수필), 'Hanmun sosol'(한문소설) 등이 추가되었다.
- ⑤ 제24판에서 'Korean War-Campaigns'의 하위개념어로 '인천상륙작전'이 추가되었다.

⑥ 제24판에서 'Korea-Intellectual life'의 시대세목이 세분되었다.

차. 제26판에서 제30판까지

① 제26판에서 'Korea-History, Military'가 수록되었다. 세목으로 3개의 시대구분만 있다.

Korea

- History, Military

-- To 935

-- 935-1392

-- 1392-1910

② 제26판에서 참조어이지만 '조선시대'(Chosen dynasty)이라는 주제명이 수록되었다. 표목은 '이조시대'(Yi dynasty)로 되어 있다.

③ 제27판에서 국가명 'Korea'의 하위개념어로 'Korea(South)'만 남겨두고 'Korea(North)'를 삭제하였다.

④ 제27판에서 '이조시대' 대신에 '조선시대'가 표목으로 수록되었다.

Korea - History

-- Choson dynasty, 1392-1910

UF Korea-History-Chosen dynasty, 1392-1910

Korea-History-Chosun dynasty, 1392-1910

Korea-History-Joseon dynasty, 1392-1910

Korea-History-Yi dynasty, 1392-1910

⑤ 제27판에서 'Korea Strait'(대한해협)의 참조어로 'Tsushima Strait'(쓰시마해협)가 수록되었다.

Korea Strait

UF Tsushima Strait

⑥ 제28판에서 'Japan, Sea of'(동해)의 참조어로 'East Sea(Korea and Japan)', 'Korea, Sea of', 'Sea of Korea' 등 한국측 표기가 일부 추가되었으나 표목은 여전히 'Japan, Sea of'로 되어 있다.

⑦ 제29판에서 '독도'의 참조어로 'Hornet Islands(Korea)'가 추가되었다.

⑧ 제30판에서 '광복절'이 독립표목으로 수록되었다.

Korea

- Anniversaries, etc

NT Independence Day(Korea)

2. 한국관련 주제명표목의 주제별 특성

LCSH 최신판인 제30판의 한국관련 주제명표목이 형성되기까지의 한국관련 주제명표목을 주제별로 분석을 하였다. 앞서 한국관련 주제명표목의 판별 분석내용을 바탕으로 하였으며, <표 2>는 제30판의 개략적인 주제별 현황을 나타낸 것이다.

<표 2> LCSH 제30판의 한국관련 주제명표목의 주제별 현황

주제명표목		항목수(%)	
역사	- 역사(history): 1948년 이전	29	86(23.1)
	- 남한역사(South Korea): 1948년 이후	8	
	- 한국전쟁(Korean war)	49	
문화	- 문화일반(civilization)	26	36(9.7)
	- 사적(antiquities)	9	
	- 여행(description and travel)	1	
언어	- 시대(period)	2	19(5.1)
	- 언어일반(language)	17	
문학	- 문학일반(literature)	34	128(34.4)
	- 시대구분(literature period)	9	
	- 시(poetry)	36	
	- 희곡(drama)	15	
	- 소설(fiction)	22	
	- 수필(essays)	4	
	- 산문(prose literature)	4	
	- 서간(letters)	1	
	- 풍자(wit and humor)	3	
사회·민족	- 사회현상(social conditions)	6	43(11.6)
	- 사회생활 및 관습(social life and customs)	2	
	- 지적인 삶(intellectual life)	5	
	- 한국인(Koreans)	4	
	- 한국계 미국인(Korean American)	26	
철학·종교	- 철학(philosophy, Korean)	8	13(3.5)
	- 종교(religion)	3	
	- 교회사(church history)	2	
정치·행정·군사	- 정치 및 행정(politics and government)	12	24(6.5)
	- 외교(foreign relations)	8	
	- 군사역사(history, military)	4	
경제·산업	- 경제상황(economics conditions)	10	15(4.0)
	- 경제정책(economic policy)	2	
	- 산업(industries-Korea)	3	
기 타		8	8(2.1)
합 계		372	372(100)

가. 역사

한국의 국가명은 제5판부터 'Korea'로 시작된 후, 제10판부터 하위개념어로 'Korea(North)'와 'Korea(South)'로 구분되어 있다. 즉, 국가명 표목으로서 Korea 아래에는 1948년 이전까지의 한국 관련 문헌과 1948년 이후의 남북한 공동 관련 문헌을 그 범위로 하고 있다. 제27판부터는 'Korea'의 하위개념어로 'Korea(North)'는 삭제되고, 'Korea(South)'만 있어 역사를 비롯한 대부분의 주제명이 1948년 이후의 'Korea' 세목에는 'Korea(South)' 중심으로 되어 있다.

역사관련 주제명표목은 한국의 국가명 표목에서 알 수 있듯이 1948년 이전의 역사와 1948년 이후의 남한역사로 구분되어 있으며, 한국 현대사의 대표적인 사건으로 취급되고 있는 '6.25 전쟁'은 제6판부터 'Korea-History'와는 독립표목으로 신설되어 있다.

한국의 시대구분을 보면 '-- To 935'부터 전개하고 있어 고려시대 이전의 상고시대를 비롯하여 고조선과 삼국시대까지를 하나의 시대로 구분하고 있다. 그런데 이의 하위개념어로 제9판까지 가야, 고구려, 신라, 백제 등이 있었지만 제16판부터 이들 주제명도 삭제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이와 같이 역사분야에 있어 문제점으로 1948년 이후의 'Korea(North)'에 대한 전개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또한 한국역사뿐만 아니라 언어, 문학, 예술 등 모든 한국관련 주제의 시대세목은 '-- To 935'를 기점으로 하고 있어 고조선이나 삼국시대의 시대 세분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리고 1948년을 기점으로 '1948-1960', '1960-1988', '1988-'의 3단계로 구분되어 있어 한국현대사의 세분이 이루어지지 않으므로, 적어도 10년 단위로 구분하거나 '1988-2000', '2000-'의 범위로 구분할 필요가 있다.

나. 문화

문화관련 주제명표목은 문화일반, 사적(antiquities), 여행의 3개 그룹으로 구분할 수 있다.

문화일반에 대한 주제명 'civilization'이 제9판에 처음 2개의 주제명으로 시작되었지만 제30판에서는 하위개념어와 세목이 26개로 늘어났다. 주로 한국문화와 영향관계에 있는 주제명(~ influences 또는 ~ Korean influences)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사적에 대한 주제명은 제12판에서 처음 수록되면서 하위개념어로 중도사적지(춘천시) 1개만 포함되어 있었지만 제30판 현재 7개로 늘어났다. 그런데 이들 주제명도 청룡사지(중원군), 회암사(양주군), 석장리(공주군), 탄금대(충주시), 중도사적지(춘천시) 등과 같이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유명한 곳이 아니며, 일본의 1,024개와는 비교조차 할 수 없다. 사적을 발굴한 후 여기에 대한 보고서나 자료가 LC에 등록이 되면 주제명표목으로 등록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일본의 사적지에 대한 주제명표목이 상대적으로 많다는 것은 사적지에 관한 자료가 실제로 LC에 많이 소장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한국의 사적지에 대한 보고서나 자료가 대부분 LC에 소장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 언어

제1판에는 'Korean language'라는 1개의 주제명으로 시작되었지만 제30판 현재 19개의 주제명으로 늘어났다. 제10판에 'Idu', 제16판에 'Kugyol' 등을 비롯한 많은 세목이 추가되었다. 그런데 언어 분야에서 상대적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문법이나 회화 등의 주제명이 누락되어 있어 여기에 대한 세목 전개가 필요하며, 또한 '이두'나 '구결'과 같이 'Hangul'(한글)도 하위개념어 또는 참조어로 추가할 필요가 있다.

라. 문학

문학관련 주제명표목은 문학일반, 문학시대구분, 시, 소설, 희곡, 수필, 산문, 서간, 풍자 등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표 2>에서와 같이 한국관련 주제명표목 가운데 34.4%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제1판에는 'Korean literature'와 'Korean literature-Bibl.' 2개의 주제명만 있었지만 제8판, 제10판, 제13판, 제16판, 제24판 등에서 장르별로 세분되고 각 장르별로 하위개념어가 많이 추가되어 제30판에는 현재 128개로 크게 늘어났다.

마. 사회 민족

한국사회와 관련된 주제명으로 제10판에 '사회현상', 제16판에 '사회생활 및 관습', 제24판에 '지적인 삶'이라는 주제명이 수록된 후, 제30판에는 이들 주제명이 세목을 포함하여 모두 13개이다. 그리고 한국민족 관련 주제명은 제1판에서 'Koreans in the U.S.'라는 1개의 주제명으로 시작되었지만 제30판에서는 30개로 늘었으며, 주로 미국에서 활동하는 한국계 미국인에 관한 주제명이 여기에 해당된다.

바. 철학 종교

한국철학 및 한국종교와 관련된 주제명으로 제9판에 'Korea-Church history', 제10판에 'Korea-Religion'과 'Philosophy, Korean'이 수록된 후, 제30판에는 이들 주제명이 세목을 포함하여 모두 13개이다.

사. 정치 행정 군사

한국정치와 관련된 주제명으로 제9판에 'Korea-Politics and government', 제10판에 'Korea-Foreign relations', 제26판에 'Korea-History, Military'가 수록된 이후, 제30판에는 이들 주제명이 세목을 포함하여 모두 24개이다. 그런데 한국군사 역사의 시대구분이 제26판에서 처음 전개되었던 그대로이며, 1910까지만 되어 있어 그 이후의 시대구분이 필요하다.

아. 경제 산업

한국경제 및 산업과 관련된 주제명으로 제9판에 'Korea-Economics conditions', 제10판에 'Korea (South)-Economics conditions', 'Korea(South)-Economics policy', 'Korea(South)-Industries' 가 수록된 이후, 제30판에는 이들 주제명이 세목을 포함하여 모두 15개이다.

자. 지리

한국의 국경 및 영토와 관련된 주제명으로 독도, 동해, 대한해협, 압록강, 두만강, 백두산 등을 들 수 있다.

독도는 제11판에 한국이라는 지리 한정어와 함께 한국식 발음인 'Tok Island(Korea)'가 표목으로 수록되었으며, 'Take-shima(Korea)'를 포함하여 참조어가 4개였다. 그 후 제23판에서는 '가지도', '삼봉도', '리양쿠르얌' 등을 포함하여 참조어가 15개, 29판에서는 '호네트얌'이 추가되어 참조어가 16개로 늘어나 오늘에 이르고 있다.

동해는 제10판에 'Japan, Sea of'는 표목으로, 'Tong-hae'는 참조어로 수록되었으며, 지리 한정어는 표기되어 있지 않다. 제28판에 'East Sea(Korea and Japan)', 'Korea, Sea of', 'Sea of Korea' 등이 참조어로 추가되었다.

대한해협은 제15판에 'Korea Strait'가 표목으로 수록되었으며, 지리 한정어는 표기되어 있지 않다. 제27판에 참조어로 'Tsushima Strait'가 추가되었다.

압록강은 제11판에 중국식 발음인 'Yalu River(China and Korea)'가 표목으로 수록된 이후, 지금까지 변화가 없다.

두만강은 제20판에 중국식 발음인 'Tumen River'가 표목으로 수록된 이후 지금까지 변화가 없으며, 한국, 중국, 러시아 3개국을 지리 한정어로 표기하고 있다.

백두산은 제10판에 한국식 발음인 'Paektu Mountain(Korea)'이 표목으로 수록된 이후, 지금까지 변화가 없다.

IV. 결 론

지금까지 LCSH 초판부터 제30판까지 한국관련 주제명의 변천과정과 특성을 분석하였다. 첫째, 1914년 LCSH 초판에서는 한국관련 주제명이 'Korean'으로 시작되는 4개뿐이었지만, 1948년 제5판부터 국가명 'Korea', 1957년 제6판에서는 'Korean War', 1986년 제10판에서는 'KLA기 폭파사건'과 '광주사태' 등이 수록된 바와 같이 시대적 변화나 큰 사건이 있을 때마다 대부분 LCSH에 반영되어 왔다.

둘째, 한국의 국경 및 영토와 관련된 대표적인 주제명으로 '독도', '대한해협', '백두산' 등은 한국어 발음으로 표목이 기재되어 있지만, '압록강', '두만강', '동해' 등은 중국어나 일본의 입장에서 기재되어 있다.

셋째, LC 주제명표목은 처음부터 분류체계에 따라 주제명을 체계적으로 부여한 것이 아니고, 관련문헌이 들어올 때마다 내용을 분석하여 필요한 주제명을 수록하고 있다. 즉, 학문적 체계보다는 문헌적 근거(literary warrant)의 원칙에 따라 주제명표목표가 전개되고 있으므로 일반적인 학문적 체계와는 구조적으로 다르게 전개될 수밖에 없는 문제점이 있다.

넷째, LC 주제명표목 가운데 특히 한국의 역사구분이나 관련 주제명이 일반적으로 우리나라 학계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와 다른 경우가 많이 나타나고 있다. 일반적으로 중요하거나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주제명이 누락되어 있고 상대적으로 지나치게 세분된 주제명도 많이 있다. 즉, 이는 LC에서 채택하고 있는 문헌적 근거의 원칙에 따라 LCSH에 주제명표목이 존재한다는 것은 실제로 해당 문헌이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주제명표목이 다양하거나 상세하게 세분될수록 다양한 해당 주제의 장서가 LC에 존재하고 있다.

결국 한국관련 주제명이 균형을 이루지 못하고 누락되거나 전개가 부족한 것은 전적으로 LC의 장서수집정책과 관련이 있지만, 최근의 학술적 연구성과가 반영된 한국관련 문헌이 LC에 골고루 많이 수집될 수 있도록 기증을 하는 등 우리의 보다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참고문헌은 각주로 대신함〉